



즉시 사용

담당

국무조정실 산업통상정책과

과장 이은청, 사무관 조성래
(044-200-2211, 2222)

이낙연 총리, 군산조선소 지원 대책 관련 간담회 개최

- ▶ 이 총리, 군산지역 조선 기자재업체 대표 만나 현장애로 청취
- ▶ 군산조선소 가동중단에 따른 지역경제 충격완화에 최선
- ▶ 군산조선소 가동중단 지역대책의 차질없는 추진과 보완 강조

□ 이낙연 국무총리는 7월 26일(수) 새만금 컨벤션센터에서 군산 조선업 기자재업체 대표, 전북지사 등과 도시락 오찬을 겸한 간담회를 갖고 최근 군산조선소 가동중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애로를 청취하고 해결방안에 대해 논의했다.

* (참석) 국무총리, 전라북도지사 송하진, 군산시장 문동신, 군산상공회의소 회장 김동수, 신산테크 김평옥(조선협의회 회장), 변영중공업김광중, 벤투스 이규호, 제이와이중공업 이홍열, 푸른에스앤피 박종관, 해수부 차관 강준석, 금융위 부위원장 김용범, 산업부 산업정책실장 강성천 등

○ 이번 만남은 지난 7월 20일 군산 국가산업단지 조선협의회가 전라북도를 통해 총리실에 건의한 것을 이 총리가 수용함으로써 이루어지게 되었다.

□ 한편, 총리실 관계자는 이날 간담회에서 조선 기자재업체 대표들이 제기한 건의사항들은 관계부처 검토를 거쳐 추진 여부와 방식 등이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.

※ (붙임) 전북 지역 현안관련 대책

1. 군산조선소 가동중단에 따른 지역지원 대책(7.20 발표)

- (선박신조 수요발굴 및 지원) 선박신조지원 프로그램(現 24억불), 노후선박교체 보조금(신조가 대비 약10%), RG발급 원활화 등
- (조선협력업체 및 근로자 충격 최소화) 증진공 대출원금 및 ‘이자’ 1년간 납부유예, 보증한도 상향(3 → 4억원), 특례보증(5천만원 한도) 재개
 - 조선기자재 협력업체 구조조정 펀드(총 2천억)지원, 전기료 기본요금 부담 경감, 기자재 수출지원사업(7억원 증액, 추경) 지원 등
 -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1년 연장('17.7~'18.6), 퇴직자 재취업 지원(300명), 조선관련 학과 재학생(연간 졸업생 120여명) 취업역량 강화 등
- (지역경제 활성화 지원) 군산항 준설 조기 완공, 농어촌 지역개발사업 지원, 조선협력업체 해상풍력 참여, 농기계 실증단지 새만금내 조성 등
- 전북도 추가제안(검토 중) : 전북·군산 현안 사업(약 3조원 규모)
 - * 군산 근대역사문화 시간여행 벨트 조성(1조 1,450억원), 선유도·고군산군도 해양관광 허브 조성(1조 851억원), 군산전북대병원 건립(555억) 등 군산 현안(1조 355억원)

2. 새만금 대책(남북도로 기공식, 7.26 발표)

- (핵심인프라 적기 준공) 동서·남북도로, 새만금-전주고속도로, 신항만 등
 - (공공주도 매립 확대) 산업용지, 국제협력용지, 관광레저용지
 - (지역경제 활성화) 지역 건설업체 참여 확대 방안 마련
- ※ 세계 잼버리대회 새만금 유치 전폭 지원

3. 전북 경제 대책(국정운영 5개년 계획, 7.19 발표)

- 전북 혁신도시를 연기금·농생명 거점으로 육성
- 5대 농생명클러스터를 스마트 농생명 벨리로 육성
- 탄소소재산업, 안전융복합제품산업 등을 미래성장동력으로 육성
- 지리산권 친환경 전기열차 사업 지원
- 국립 지덕권 산림치유원 및 국립 치유농업원 조성 지원